

꺼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에 대한 유해성 인식과 각종 담배 규제 방식에 대한 인식 비교

김정원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박사)

안정용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정보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성용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

꺼련형 전자담배는 기존의 연초를 태우는 방식이 아닌 연초 고형물을 기기를 통해 쪼는 방식으로 신종 담배의 한 유형이다. 꺼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꺼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과 이에 따른 규제 정책의 혼선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그러나 각종 담배에 대한 연구는 과학적, 정책적 접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담배 소비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소비자 입장의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흡연자와 연초, 꺼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모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각종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현재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연초와 꺼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비교할 때 냄새, 건강 문제 경험, 중독성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여전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의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꺼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정책 시행에 있어 정책의 목적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본 연구는 꺼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각종 담배와 관련 규제 정책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과 실무자들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신종 담배, 꺼련형 전자담배, 금연 정책, 담배 규제, 보건 정책, 인터뷰 연구

* sungyj@korea.ac.kr, 교신저자

1. 서론

불로 태우는 방식의 기존 연초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소위 말하는 쪼는 전자담배로 시장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국내 담배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2017년 글로벌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IQOS), BAT로스만스의 글로(GLO) 등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5년 사이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하였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담배시장 동향’ 조사 결과 총 담배 판매량의 경우 2020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4억 4000만 갑으로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2022).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 시장에 처음 등장한 2017년과 비교하면, 그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5940억에서 2021년 2조 5134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와 같은 신종 담배의 등장은 소비자들의 흡연 행태도 변화시켰으며, 소비자들은 기존 연초에서 신종 담배로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 등을 함께 흡연하는 방식으로 다중담배를 사용하고 있다. 2021년 국민건강통계 조사 결과 연초 흡연율은 19.3%로 나타났고,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4.6%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연초와 전자담배 등 각종 담배를 모두 포함하는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은 22.8%로 나타났다(윤지현, 2023). 특히 전자담배 흡연율을 포함한 전체 흡연율 모두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 기준 각각 0.7%p, 0.3%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송치훈, 2023).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내 영향력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흡연 행태가 달라지고 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분분하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을 출시하는 제조 회사는 자신들의 제품이 기존 연초보다 덜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꾸준히

발표해왔다. 가령,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를 판매하고 있는 BAT로스만스는 1년간 진행한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유해성이 낮다고 주장했다(신선미, 2022). 또 다른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 회사인 필립 모리스의 연구 결과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배출하는 잠재적 유해물질이 연초에 비해 9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imonavicius, McNeill, Shahab, & Brose, 2019). 그러나 독립 연구자에 의해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로레인,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연초에 비해 낮게 나타나긴 했지만, 이 수치는 담배 제조회사의 연구 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다(Auer et al., 2017). 이철민, 김성렬, 그리고 정유석(2018)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 영향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엔 여전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하는 담배 규제 정책 또한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수입과 사용 자체를 금지하기도 하며, 연초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거나 반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조홍준, 2020). 예를 들어,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연초에 비해 50%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경고 그림, 금연 구역 지정, 광고 등에 있어 연초보다 낮은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반면,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연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대한 담뱃세는 연초의 90%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이외의 규제도 연초와 동일한 수준으로 받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신종 담배와 관련된 연구들은 유해성

에 대한 과학적 접근(예: Bekki, Inaba, Uchiyama, & Kunugita, 2017; Farsalinos et al., 2018; Fried & Gardner, 2020)이나 정책적 접근(예: 박명배, 2019; 신승근·유경선·조경희, 2017; 이철민 등, 2018; 이철민, 2020; 최지은·조홍준, 2021)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궤련형 전자담배가 국내 시장에 등장한 2017년부터 3년 간 진행된 궤련형 전자담배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8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편의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궤련형 전자담배의 흡연이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질환과 연관이 있음을 밝혔고, 6편의 연구는 연령, 흡연행태 등에 따라 궤련형 전자담배의 사용 양상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된 연구 내에서 소비자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전은실·황지은, 2020). 소비자는 궤련형 전자담배의 소비 주체이자 담배 관련 규제 정책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소비자 관점의 접근에서 진행하는 연구 또한 요구된다. 특히 소비자들의 궤련형 전자담배 등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인구집단에 대한 담배의 건강영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다(조홍준,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연초와 함께 신종 담배로 등장한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과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밝히고자 한다. 이때 연초 흡연자,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비흡연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특정 집단이 아닌 전체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볼 계획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개별 심층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여 아직 초기 시장 단계에 머물러 있는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초와 궤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비교하고, 이러한 유해성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 근거를 밝힐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담배 규제

정책과 궐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에 대한 규제 방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까지도 새롭게 등장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지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전통 연초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중심으로 국내 담배 시장이 개편되고 흡연자들의 신종 담배로의 전환, 다중흡연 등 흡연 행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를 포함한 소비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각종 담배에 대한 유해성 인식과 규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 과학적, 정책적 접근 위주로 진행됐던 궐련형 전자담배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의 유해성 인식을 비교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에 대한 규제 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금연 관련 정책 마련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과 흡연 문제

2017년 글로벌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자사 제품 아이코스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통 연초와는 달리 새롭게 등장한 신종 담배의 한 종류로 연초 고형물을 특수 제작된 전자기기에 끼워 흡연한다. 흡연할 때 연초는 800도 가량의 온도에서 연소되는 반면, 궐련형 전자

담배는 300도 가량의 온도에서 가열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heat-not-burn tobacco로 불리며, 가열 담배, 찌는 담배 등의 명칭이 쓰이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과 함께 BAT로스만스의 글로, KT&G의 릴 등이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함께 또 다른 신종 담배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있으며, 배터리로 가열된 니코틴 용액을 기체로 흡입하는 형태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전자담배, electronic cigarette, e-cigarette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2019년 미국에서 각광받았던 줄(JUUL)이 국내에도 출시되면서 신종 담배 간 시장 경쟁은 다시 한 번 치열해졌다. 그러나 안전성 등의 문제와 함께 미성년자 흡연의 조장, 전자담배로 인한 폐 질환 유발 사태 등으로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국내 시장에서도 2021년 판매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종 담배의 종류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중심으로 이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7년 국내 시장에서 첫 판매가 시작된 뒤로 현재까지 꾸준하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초의 판매량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상승세는 주목할 만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이후로 담배 판매량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담배 종류 별로 살펴보았을 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초의 경우 2022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15.2억 갑이 판매되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한 2.6억 갑이 판매되었다(기획재정부, 2022). 전체 담배 판매량이 1년 전과 비교해 1.9% 증가한 것은 결국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 증가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국내 성인 흡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그 감소 폭은 둔화되었다. 2020년 기준 만 19세 이상 국내 성인 흡연율은 20.6%로 나타났으며, 남성 성인 흡연율은 34.0%, 여성 성인 흡연율은 6.6%로 조사되었다(질병관리청, 2022). 신종 담배가 등장하면서 연초와 각종 전자담배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담배 사용률은 연초 흡연율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질병관리청, 2022).

흡연은 여전히 국내 사망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우리나라 흡연 관련 사망자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차원에 있어 흡연은 개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개인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치료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손실되는 근로시간인 작업손실비용, 흡연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조기 사망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인 조기사망비용 등 간접비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김수정·권순만, 2008). 이와 같은 흡연 관련 직간접 비용은 개인만의 부담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빈, 2022). 전체적인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꺼련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 담배의 등장으로 전체 담배 판매량이 다시 증가하고, 다중 담배 이용 등으로 인해 흡연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효과적인 금연 유도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꺼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꺼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방식 또한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꺼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연초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인식하고, 현재 담배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

불 필요가 있다.

2)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연초에는 여러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흡연과 간접흡연 모두를 발암성이 확실한 발암물질 1군으로 지정하였다. IARC에 따르면 흡연을 할 때 담배 연기와 직접 닿는 구강, 식도, 기관지 등 외에 간, 자궁경부, 신장, 위와 같은 다른 신체 기관에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IARC, 2004; 질병관리청, 2022). 가령, 이은하 등(2010)은 흡연이 전체 암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여 전체 사망의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혔으며,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암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 심·뇌혈관 질환, 생식기 질환 등 각종 질병의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USDHHS, 2014; 질병관리청, 2022). 흡연 행동은 흡연을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흡연하면서 내뿜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간접흡연을 경험했을 때 직접 흡연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혀졌다(질병관리청, 2022). 지속적인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흡연자와 비슷하게 폐 기능 저하와 같은 건강위험을 경험할 수 있고(USDHHS, 2014; CDC, 2022; 질병관리청, 2022), 간접흡연은 폐암, 심장병, 호흡기계 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은진·이정화, 2005). 간접흡연은 신체적인 건강 문제와 함께 정신적 건강 문제도 유발하여 간접흡연에 노출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더 높은 우울 증상과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원 · 김혜경 · 오영아, 2016).

지금까지 진행된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연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담배 제조 회사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면서 연소되는 방식의 전통 연초와는 달리 쪼는 방식으로 흡연을 하기 때문에 발암물질도 더 적게 배출되고, 인체에 덜 해롭다고 주장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BAT로스만스는 연초에서 글로로 완전히 전환한 집단이 연초를 흡연한 집단에 비해 폐 질환, 암, 심혈관질환의 조기 발병과 관련된 잠재적 위해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와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신선미, 2022). 이외에도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통 연초와 비교했을 때 일산화탄소 농도가 1/10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Bekki, Inaba, Uchiyama, & Kunugita, 2017), 흡연 시 발생 되는 극미세 입자들이 연초가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4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Protano, Manigrasso, Avino, & Vitali, 2017). 궐련형 전자담배와 연초를 비교한 각국의 연구들에 대한 문헌 검토 연구를 확인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에어로졸에는 연초에 비해 57%에서 83% 수준의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잠재적 유해 독성 물질의 수준을 연초의 최소 62%, 미립자 물질을 최소 75%까지 감소시켰다. 사람에게 독성 물질을 노출시키는 정도는 42%에서 96% 사이로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Simonavicius, McNeill, Shahab, & Brose, 2018). 그러나 담배회사와 독립적으로 담배 유해물질을 연구한 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니코틴, 타르의 함량과 흡입량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연초와 비슷한 수준이며 결과적으로 일부 유해물질이 줄어들긴 했지만

만, 마찬가지로 유해하다고 판단된다(이철민 등, 2018). 조홍준(2020)은 각종 담배가 배출하는 유해물질을 비교한 이전 연구 결과 검토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일부 유해물질 농도는 연초에 비해 낮지만, 연초에 없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만 있을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확인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각종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는 담배회사의 지원을 받은 연구와 독립적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정도는 달랐지만 궐련형 전자담배가 전통 연초보다는 덜 유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 연구 결과들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완전히 무해한 제품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며, 궐련형 전자담배 또한 연초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개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품이다. 기관과 연구자들은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사람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계속해서 밝히고자 하지만 여전히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새롭게 등장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소비자들의 담배 사용 행태를 확인하고 예측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소비자들이 어떠한 근거로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밝힌다면, 향후 각종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금연 관련 교육을 진행할 때 필요하거나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궐련형 담배 관련 규제 현황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담배 관련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구매 연령의 제한, 금연 장소 지정, 세금 정책을 통한 가격 인상, 마케팅 제한과 금지, 담뱃갑 경고 그림, 금연 지원 등의 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등을 통해 단계별로 중장기 담배 규제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수영·김길용, 2022). 특히 정부는 규제 정책의 대상에 신종 담배를 포함하여 규제를 확대, 강화하고자 하였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최근 새롭게 등장한 담배의 유형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제의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연초에 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우호적으로 취급하여 완화된 방식으로 규제하기도 한다. 독일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연초가 아닌 파이프 담배로 분류하여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담뱃갑 경고 그림을 부착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연초와 같이 규제하지 않고 금연구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이철민 등, 2018).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우호적인 접근을 하는 국가들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연초에 비해 낮게 평가하여 궐련형 전자담배를 금연의 중간 단계 혹은 금연 보조제로 여기기도 한다(박효주, 2022). 예를 들어, 영국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허가하였으며,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는 2021년 11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흡연자에게 니코틴 대체요법과 함께 전자담배를 금연의 한 방법으로 권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NICE, 2021). 뉴질랜드는 2023년부터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흡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자담배 판매는 예외적으로 허용함으

로써 연초보다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점에서 전자담배를 일종의 금연 보조제로 활용하고 있다(남라다, 2022).

그러나 유해물질이 낮다고 하더라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규제 정책 또한 아직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찾고 있지 못하다. 국내의 경우 해외와 비교했을 때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에 대해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초와 동일하게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등 마케팅을 제한하고, 포장지에 담뱃갑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금연구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진예지·강민구·박태은, 2022).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또한 연초의 90% 수준으로 책정하면서(이철민, 2020) 가격 측면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이와 같은 보수적인 규제 방식에 대해 전자담배에 대한 완화된 규제를 통해 흡연율을 줄이려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줄어들지 않고, 매해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진예지 등, 2022).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4) 각종 담배와 규제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의 필요성

궐련형 전자담배가 등장함에 따라 담배의 사용 행태가 달라지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방식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

지만, 꺼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내 소비자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검색 트렌드와 온라인 뉴스 내용 분석을 진행한 결과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으로서 꺼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꺼련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황지은, 2020). 연초와 동일한 규제 방식으로 꺼련형 전자담배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소비자들이 현재 꺼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성 판단의 기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과 스위스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꺼련형 전자담배 제품인 아이코스의 제품 포장이 매력적이고, 냄새나 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흡연이 용이하다고 답변하였다(Hair et al., 2018). 또 다른 설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있는 참여자는 연초보다 꺼련형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고, 연초 금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Fung et al., 2020). 국내의 경우 유해성 인식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나, 일부 연구는 설문 조사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꺼련형 전자담배의 사용 이유를 밝혔다. 연구 결과, 담뱃재가 남지 않아 사용 후 처리가 쉽고, 연초에 비해 냄새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꺼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간접흡연의 피해가 적고, 연초보다 덜 해로울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꺼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지민·조홍준, 2021). 연구자들은 꺼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꺼련형 전자담배와 연초, 액상형 전자담배의 복합 사용 행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군인의 각종 담배 복합 사용에는 군계급, 기타 담배 제품 사용 경험, 상급자의 흡연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궤련형 전자담배의 복합 사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권은주 등, 2019). 이외에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궤련형 전자담배 관련 연구를 검토한 결과 주로 흡연자의 궤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권은주 등, 2020; 설귀환·정지운·임병인, 2021; 이윤창·박상태·박진용, 2021), 전자담배 흡연과 건강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박민희·송혜영, 2020; 조준호, 2020)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대부분 연구는 청소년, 군인, 성인 남성 등 특정 집단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별과 연령 등 인구통계 정보뿐만 아니라 흡연 여부와 흡연하는 담배의 유형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 결과를 참고했을 때 소비자들은 궤련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덜 유해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궤련형 전자담배 사용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연초와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인식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유해성 인식에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흡연자, 연초 흡연자, 궤련형 전자담배를 모두 포함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담배의 유해성 인식을 비교하고, 유해성 인식의 근거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연구 문제 1. 소비자들은 연초와 비교했을 때 궤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유해성을 기준으로 국가별 담배 규제 정책을 집행하고,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보수적인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궤련형 전자담배의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내 연구에서 꺼련형 전자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꺼련형 전자담배를 연초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해외 일부 국가들에서 꺼련형 전자담배를 연초와 차등적으로 규제하면서 꺼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적용하거나 꺼련형 전자담배를 일종의 금연보조제로 이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전반적인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함께 꺼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의 동일 규제 방식과 차등 규제 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 이전 담배 규제 정책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흡연 행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비흡연자는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강화, 담뱃세 인상 등의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우선 순위를 높게 평가했지만, 흡연자의 경우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담배 구매 연령의 조정, 담배 광고 전면 금지 등의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우선 순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엄남현(2017)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담뱃값 경고 그림이 정작 흡연자들에게는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비흡연자들이 담뱃값 경고 그림에 노출되었을 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흡연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즉, 흡연 유형에 따라 담배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연구는 흡연의 위해 당사자이자 규제 정책의 대상인 소비자를 흡연 유형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면밀하게 소비자 인식과 평가를 밝히고, 구체적인 금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의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연구 문제 2. 현재 전반적 담배 규제 정책과 꺼련형 전자담배와 연

초의 동일 규제 방식과 차등 규제 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3. 연구 방법

1) 심층 인터뷰

본 연구는 소비자가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각종 담배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였다. 양적 연구 방법의 경우 미리 정해진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기는 용이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정책 평가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심층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은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양적 연구 방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Bryman, 2012). 심층 인터뷰 방법으로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semi-structured interview) 방법을 이용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준비한 인터뷰 질문지에 따라 정해진대로 진행되는 구조화된 인터뷰 방법보다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인터뷰 가이드를 사전에 준비하지만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어느 정도 인터뷰의 진행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연구자가 미리 인터뷰 가이드를 준비하여 연구 주제와 목적에 맞는 질문을 체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동시에 참여자의 답변 내용과 형식이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심

충적이고 폭넓게 제공할 수 있다(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2).

2) 인터뷰 진행 절차

인터뷰는 개별 면담 형태로 2022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다. 인터뷰 참여 대상자는 흡연 형태를 고려하여 20대부터 40대까지 성인 남녀 비흡연자, 연초 흡연자, 꺼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로 하였다. 참여자는 총 19명을 모집하였으며, 구체적인 참여자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기간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교내 방역 수칙에 따라 외부인의 연구실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는 비디오 미팅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인터뷰 참여자에게 인터뷰의 모든 내용은 녹화되며, 인터뷰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본 연구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이에 동의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흡연 관련 경험, 연초와 꺼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인식, 인식의 근거, 전반적 금연 정책에 대한 평가, 꺼련형 전자담배의 규제 방식에 대한 평가 등의 질문 항목들을 제시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참여자 별 한 시간 내외로 소요되었다. 사전에 준비한 인터뷰 가이드라인에 따라 참여자에게 질문이 끝난 뒤 다시 한 번 연구의 목적과 윤리 규정에 대해 안내한 후 미리 공지한 내용에 따라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 뒤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별	나이(만)	흡연 여부	흡연 기간 (년)	흡연량 (하루 평균 개비)
A	남	32	비흡연	-	-
B	남	24	비흡연	-	-
C	남	41	비흡연	-	-
D	여	34	비흡연	-	-
E	여	26	비흡연	-	-
F	남	30	연초	14	15
G	남	27	연초	6	10
H	여	30	연초	10	2
I	여	29	연초	7	5~10
J	여	24	연초	6	5
K	여	22	연초	2	5
L	남	29	릴 하이브리드	10	20
M	남	26	글로	0.1	15
N	남	36	릴	3	20
O	남	31	릴 하이브리드/ 아이코스	2	10
P	남	30	글로	1	20
Q	남	38	아이코스	4	20
R	여	27	릴 하이브리드	0.5	10
S	여	27	아이코스	4	20 이상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인터뷰 답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은 참여자의 답변에서 핵심 의미를 찾아내고 그 현상의 본질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박은영 등, 2020). Colaizzi의 방법은 인터뷰 답변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고 범주화를 통해 경험의 본질적인 구조를 밝히는 데 용이하다(김분한 등, 1999).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참여자 개인의 경험보다는 전체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 것에 집중한다. 본 연구는 꺼련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담배 사용 경험이나 규제 정책에 대한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이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담배의 유해성 인식 결과와 그 기준, 여러 규제 방식에 대한 실효성 인식 등 공통적인 속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Colaizzi의 분석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의 단계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녹화된 인터뷰의 내용은 전사하여 문서화 하였으며, 여러 차례 읽으며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 후 의미 있는 구나 문장을 추출하였으며, 이 때 각종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내용, 규제 정책에 대한 의견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진술을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 하였으며, 이러한 진술과 재진술을 바탕으로 구성된 의미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추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 모음(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김분한 등, 1996; 김분한 등, 1999; Walls et al., 2011). 그 결과 각종 담배의 유해성 인식 차이와 차이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담배 규제 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평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연구 결과

1) 궤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에 대한 유해성 인식 차이 (연구 문제1)

참여자들은 여러 기준을 통해 궤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에 대한 유해성 인식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냄새, 유해물질 함량, 가열 방식, 건강 경험을 기준으로 궤련형 전자담배보다 연초가 더 유해하다고 인식하였다. 일부 참여자의 경우 간접흡연의 가능성과 과학적 근거의 부족을 이유로 궤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연초와 비슷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중독성을 근거로 궤련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더 유해하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참고).

〈표 2〉 연구 문제1 결과

유해성 인식	기준
궤련형 전자담배 < 연초	(1) 냄새 (2) 유해물질 함량 (3) 가열 방식 (4) 건강 경험
궤련형 전자담배 = 연초	(5) 간접흡연의 가능성 (6) 과학적 근거 부족
궤련형 전자담배 > 연초	(7) 중독성

(1) 냄새에 근거한 연초의 높은 유해성 인식

냄새는 직관적으로 각종 담배의 유해성을 인식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었다.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 연초와 궤련형 전자담배

의 유해성을 비교했을 때 냄새가 독하다는 이유로 연초가 더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을 통해 소비자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평가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불쾌감과 같은 직관적인 근거를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흡연 행동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고, 암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관련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각종 담배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있는 소비자는 거의 없었다.

“사실 어느 정도 해로운지는 저도 그냥 막연하게 폐에 안 좋고 건강에 안 좋다는 것보다는 냄새가 싫어 나쁘다고 생각해요. 연초가 그냥 냄새가 독하니까 냄새 순으로. 꺼련형 전자담배는 열은 연초 냄새라서 그게 좀 덜 해로울까 싶어요.” (C, 비흡연)

“연초가 제일 안 좋을 것 같은 게 냄새도 그렇고.” (Q, 꺼련형 전자담배 흡연)

특히 비흡연자의 냄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꺼련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은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인식으로도 이어졌다. 비흡연자들의 경우 꺼련형 전자담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연초보다 더 적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냄새가 덜 나고 그로 인한 불쾌감도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이전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등 냄새로 인한 불쾌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꺼련형 전자담배 흡연을 결정했다(Hair et al., 2018).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사람들은 냄새를 기준으로 꺼련형 전자담배의 간접흡연 유해성이 연초보다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흡연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술 먹다가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어찌다 우연히 나가게 되면 연초를 피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기도 싫은데 그냥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하고는 근처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저는 그냥 서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크게 불쾌감이 느껴진 적은 없었거든요.” (D, 비흡연)

“아예 안 피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적어도 불쾌감 정도는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나다니면서 피면 둘다 똑같이 안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불쾌감은 더 적을 것 같아요.” (E, 비흡연)

(2) 유해물질 함량에 따른 연초의 높은 유해성 인식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경우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지만, 타르와 같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연초의 유해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인식은 기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일부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가령, 연초와 비교했을 때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18-73%였고, 일산화탄소(98% 이상 감소), 잠재적 유해물질(62%) 이상 감소, 타르(21% 이상 감소)와 같은 유해물질도 더 적게 함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onavicius et al., 2019).

“전자담배는 타르가 없다고 들어서 타르로 인해 연초가 더 해로운 것도 있을 거고.” (H, 연초 흡연)

“연초가 가장 해로운 이유가 전자담배에서 그래도 뭐가 빠진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발암 물질 중에. 그래서 연초가 가장 뭔가 니코틴 타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더 해롭다.” (I, 연초 흡연)

특히 비흡연자와 달리 흡연자에게는 담배 제품이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니코틴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물질의 함량을 기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의 유해성을 비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자는 고관여도 제품에 대해서 높은 각성, 관심, 애착 수준을 보인다. 제품에 대해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광고 메시지나 제품 관련 정보를 중심 경로(central route)로 처리하고(Petty, Cacioppo, & Goldman, 1981; Cacioppo & Petty 1989), 제품에 대해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할 때 높은 적극성과 신중함을 보인다(Mitchell, 1981). 흡연자들에게 담배는 고관여 제품으로서 담배를 구매할 때 여러 정보와 대안을 신중하게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결과적으로 비흡연자보다 담배 제품군에 대해 높은 지식 수준을 갖게 되고 담배에 대한 유해성 인식을 판단할 때 단순히 니코틴 함량뿐만 아니라 타르 등 기타 유해물질의 함량도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3) 가열 방식에 따른 연초의 높은 유해성 인식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모두 담배의 가열 방식에 따라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태우는 방식의 연초가 더 낮은 온도에서 태우지 않고 가열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더 유해하다고

응답하였다. 흡연자뿐만 아니라 일부 비흡연자도 가열 방식을 기준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인식하였다.

“퀄런형 전자담배는 요새 길 가다가 가끔 광고를 하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퀄런형 (전자담배)는 찌다고. 기기를 통해서 담배를 태우는 게 아니라 찌는 거다. 그래서 그쪽 회사의 주장으로는 좀 덜 해롭다고 하니까 연초보다 덜 해로울 것 같아요.”(D, 비흡연)

“퀄런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건강에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일환인 것 같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어찌 됐건 간에 연초는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전자담배는 일단 태우는 게 아니라 찌는 거니까 덜 하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E, 연초 흡연)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뒤져봤거든요. 근데 퀄런형 전자담배(Glo)로 실험을 한 데이터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통계 자료를 보고 이 퀄런형 전자담배를 피웠을 때랑 비흡연자랑 비교하는 여러 수치가 있는데 조금씩 비슷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연초보다 덜 해롭다고 생각해요. 연초는 태우는 거고 퀄런형 담배는 찌는 거잖아요. 나오는 성분 자체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연초는 일단 냄새까지 나니까 심리적으로도 별로고.” (P, 퀄런형 전자담배 흡연)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퀄런형 전자담배의 가열 방식에 대한 정보를 담배 제조 회사의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을 통해 얻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담배 제조 회사를 통해 얻은 정보라는 점에서 해당 정보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있지는 않았다.

“제가 아이코스 매장 가면은 항상 듣거든요. 이거는 직접 태우는 게 아니라서 발암 물질이 되게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진짜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저는 잘 모르죠.” (S, 꺼련형 전자담배 흡연)

(4) 건강 문제 경험에 따른 연초의 높은 유해성 인식

흡연자는 흡연을 하면서 경험한 직접적인 건강 문제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연초 흡연자의 경우 연초를 흡연하면서 경험한 목 통증, 가래, 두통 등의 증상과 연초 흡연을 중단했을 때 건강 상태가 좋아졌던 경험을 토대로 연초가 유해하다고 인식하였다. 꺼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경우 이전에 연초를 흡연했던 기간과 비교했을 때 건강 상태가 더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연초보다 꺼련형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고 평가하였다.

“흡연을 좀 많이 하고 잔 다음 날은 확실히 이제 목 상태도 안 좋아서 목소리 내기도 힘들고. 새벽에 밤새 가면서 공부할 때 흡연을 하면은 머리가 어지럽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반대로, 연초를 안 폼을 때 괜찮았던 점들도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흡연이 안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G, 연초 흡연)

“연초를 폼을 때 확실히 몸이 좀 안 좋아진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몸이 무거워지고 살짝 어지럽다고 해야 하나요. 근데

전담(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꾸니까 가래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두통은 아예 없었고.” (M,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꾼 후) 달리기를 해도 쉽게 지치지 않고. 연초를 흡연할 때는 오래 달리기 이런 거 하면은 조금만 달려도 킁킁거리고 숨이 차오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N,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5) 간접흡연의 가능성으로 인한 궐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의 유해성 동일 인식

앞서 비흡연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냄새로 인한 불쾌감이 덜하다는 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덜 유해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흡연자들은 오히려 이런 점이 간접흡연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만큼 유해하다고 인식하였다. 흡연자들은 흡연하고 있는 담배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타인에게 동일한 수준의 간접흡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에 비해 냄새만 덜 할 뿐 여전히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오히려 타인에게 불쾌감을 덜 주기 때문에 간접흡연의 기회를 높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연초랑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은 똑같다고 봐요. 냄새만 덜 날 뿐이지. 연초보다 덜한데 그래도 니코틴에 의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G, 연초 흡연)

“아무래도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연초만큼 냄새가 진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제 흡연자도 (궐련형) 전자담배는 좀 용납

이 된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실내에서 꺼다든가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간접흡연 기회를 올리고. 냄새 때문에 불쾌감 이런 거는 덜할 수 있어도 결국 그 연기에서 나오는 나쁜 해로운 물질은 똑같지 않을까.” (I, 연초 흡연)

“어차피 내뿜는 연기를 통해 간접흡연은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니까 냄새가 조금 덜 날 뿐이죠. 아니 좀 안 좋은 냄새가 덜 날 뿐이지 어쨌든 안 좋은 것들을 받는 거는 간접흡연은 아이코스나 연초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Q, 꺼련형 전자담배 흡연)

(6) 과학적 근거 부족에 따른 꺼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의 유해성 동일 인식

소비자들은 냄새, 유해물질, 가열 방식, 중독성 등 여러 기준을 통해 연초와 꺼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비교하고자 하였고, 대부분 연초가 꺼련형 전자담배보다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를 할 때 스스로 각종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답변한 소비자들은 거의 없었다. 특히 흡연자 중에서도 연초 흡연자보다는 꺼련형 전자담배 흡연자가 담배의 유해성을 평가할 때 과학적 연구 결과 등 근거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꺼련형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보지 못했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직 꺼련형 전자담배 제품이 출시된 지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기엔 표본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들은 꺼련형 전자담배를 소비하고 있는 주체이지만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초 흡연자보다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꺼련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덜 유해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거는 더 해롭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저한테도 연기랑 나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궤련형 전자담배보다 연초가 더 해로운.” (D, 비흡연)

“궤련형 전자담배랑 연초랑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해로운지 그런 연구 결과는 보지 못했구요.” (M,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

“건강은 궤련형 전자담배가 조금 덜 해롭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믿지는 않아요. 두 종류 담배 모두 건강에는 차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O,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

일부 흡연자의 경우 궤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한 역학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유해성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로 조홍준(2020)은 궤련형 전자담배 사용과 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 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궤련형 전자담배의 도입이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장기간의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심리적으로도 냄새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과학적인 게 아니라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까지는 제가 잘 대답을 못 드리겠어요. 유해한데 어떻게 유해한지 모르니까 연구 결과 나온 것도 아니고. 궤련형 전자담배를 10년 동안 핀 사람도 아직 안 나왔을 테고.” (N,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

(7) 중독성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의 높은 유해성 인식

비흡연자와는 달리 흡연자들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우려했으며, 중독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초보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더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은 흡연하고 있는 담배의 종류와 관계없이 흡연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 흡연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와 동일하게 니코틴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는 것에 더해 냄새가 덜하고, 심리적으로 연초보다 덜 해롭다고 느껴지면서 흡연량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였다. 연초 흡연자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중독의 대상이 될 것으로 인식했으며,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덜 받고 흡연할 수 있고, 연초와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끊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도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고, 이들은 실제로 연초를 흡연할 때보다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꾸면서 흡연량이 더 늘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흡연 패턴은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재택 근무와 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판매가 급증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출 현황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백주아, 2022).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와 똑같이 니코틴으로 중독을 일으키고 연초는 원래 끊기 힘든데 궐련형 전자담배는 거기에 이제 마음의 허들까지 낮춰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끊기는 힘들고 건강에 해롭죠. 중독으로 따지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더 해로울 수도.” (G, 연초 흡연)

“(궐련형) 전자담배는 어디서든 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담배를 끊기 어렵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고 (궐련형) 전자담배 하는 분들이 연초도 병행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두 종류의 담배 간) 시너지 효과 때문에 더 끊기 힘들 수도 있겠다.” (K, 연초 흡연)

“오히려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밖에서 연초를 피서 흡연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N,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연초에 비해) 전자담배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씹니다. 반갑 이상 정도 피는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으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집에서도 안 나가고 화장실 같은 데서 피우면 되니까 더 많이 피게 됩니다.” (E,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2) 전반적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궐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의 차등 및 동일 규제 방식에 대한 의견 (연구 문제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은 그 실효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 또한 담배 가격 인상이나 벌금 부과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이 금연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소비자들은 간접흡연의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규제 정책을 요구하였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의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정책의 목적과 객관적 근거를 명확히 한 다음 정책의 방향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이 선행되기 전에 차등 및 동일 규제 방식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차등 규제 방식과 동일 규제 방식에 대한 선호를 확인한 결과, 일부 소비자는 현실적인 금연 목표 달성과 간접흡연 피해의 감소를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표 3〉 연구 문제2 결과

규제 방식	참여자 의견
전반적 담배 규제 정책	(1) 낮은 실효성 인식과 추가적인 규제 정책 필요 (2) 간접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필요 (3) 정책의 목적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방향성 결정 필요
궐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의 차등 규제	(4) 현실적인 금연 목표 달성 고려 (5) 간접흡연 피해 감소
궐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의 동일 규제	(6) 중독의 위험성

차등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중독성의 위험을 고려했을 때 궐련형 전자담배도 연초와 동일한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나타났다(<표 3> 참고).

(1) 금연 정책에 대한 실효성 평가와 추가적인 규제 정책의 요구

현재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제 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은 실효성이 굉장히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재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에게 같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금연구역 지정, 공익 광고, 담뱃갑 경고 그림, 금연 캠페인 등의 규제 정책을 떠올렸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효과가 없다고 느꼈다. 특히 흡연자의 경우 담뱃갑 경고 그림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면서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나와 내 주변에 피해를 미치는데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많은 공익 광고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A, 비흡연)

“금연구역 지정은 그 구역에 대한 강제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효과적이지 않고, 공익 광고도 담배를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흡연율을 줄이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B, 비흡연)

“지금 연초 태우는 사람들 이거 그림 과연 볼까요. 신경도 안 써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림 쳐다도 안 봐요. 봤을 때 한 30초 정도 ‘담배 끊어야 하는데.’ 그때뿐이에요.” (E, 연초 흡연)

“실상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담배를 처음 사보는 사람들이나 한 1년 차 정도까지만 이거를 보지 이걸 아예 보지도 않잖아요. 피는 사람들은 (경고 그림이) 타격도 없고.” (R,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

소비자들은 현재 금연 캠페인이나 금연에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나 금연 프로그램은 금연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그보다는 담뱃값 인상이나 벌금 부과 등의 규제 방식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더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흡연자의 경우 담뱃세 인상이나 벌금 부과를 통해 얻은 세수로 흡연자를 위한 흡연 공간을 마련하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처럼 담배를 엄청 비싸게 하고 담배 피우기 굉장히 좀 귀찮고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한테 벌금도 좀 많이 물리고 이런 식으로 규제가 많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J, 연초 흡연)

“우스갯소리로,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받고 끊는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럼 그거 다 받고 의무적인 기간만 지키고 다시 흡연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봤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O, 꺼련형 전자담배 흡연)

일부 흡연자는 효과적인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 정책보다 금연 관련 교육과 캠페인의 확대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연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흡연자들에게 금연 결심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의지가 있는 흡연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규제보다는 그 사람들이 끊을 의지가 있을 때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더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H, 연초 흡연)

“지금 보건소 같은 데서 금연 캠프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데 사실상 보건소는 굉장히 접근성도 떨어지고 운영 프로그램은 더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아예 대놓고 캠페인 벌여서 사람들에게 일대일 상담사를 연결을 해주거나 그냥 이런 방침이 제일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R, 꺼련형 전자담배 흡연)

(2) 간접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

전반적인 담배 관련 규제 정책에 있어서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소비자들은 과거 간접흡연과 연관된 뉴스 기사, 교육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간접흡연이 직접 흡연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했다.

또한, 직접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간접흡연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피해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간접흡연 문제의 심각성은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에게 나타났다.

“제가 어렸을 때 기사를 봐서. 직접 흡연으로 사람이 담배 연기를 빨아들었다가 내뿜는 걸 이제 빨아들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30%고 내뿜는 게 70%라고 해서 그 70%가 간접흡연자에게 갔을 때 더 안 좋다는 기사를 봤었어요. 그것 때문에 간접흡연이 더 안 좋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A, 비흡연)

“어려서부터 계속 간접흡연이 더 안 좋다고 배워왔으니까. 간접흡연으로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거 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간접흡연이 더 안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G, 연초 흡연)

“직접 흡연은 좀 어쨌든 본인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고 어쨌든 선택한 일인데 간접흡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정말 불쾌하고 어떻게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I, 연초 흡연)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흡연자들의 경우 길거리 흡연 규제와 함께 흡연 공간을 마련하는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지역 내 주요 거리가 금연 거리로

지정되고, 버스와 지하철역 근처, 공원과 학교 주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금연구역 지정이 늘어남에 따라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아닌 곳을 찾아가 흡연을 하고, 이러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김보미, 2022). 담배 관련 규제 정책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되면서 흡연자들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길 거리에서 흡연하는 등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흡연 부스 등 별도의 흡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저는 길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는 거 좀 규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인프라가 좀 마련이 돼야 하겠죠.”(H, 연초 흡연)

“무작정 금연 거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처럼 흡연 부스를 많이 설치하고, 세금으로 거기도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N,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3) 정책의 목적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규제 정책에 대한 요구

소비자들은 연초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고 시행할 때 정책의 목적과 결정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각종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응답할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관련 규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현재까지 제공된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 자료에 대해서

는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전히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의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연초에 비해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비교적 그래도 덜 해롭다는 그런 충분한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좀 차등을 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덜 유해하다는 정보가 거짓된 정보가 아니라면.” (E, 비흡연)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게 명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로 나와 있다면은 다르게 규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독성에 대한 부분은 연초로 안 넘어가게만 잘 규제 이렇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막아주고.” (G, 연초 흡연)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궐련형 전자담배가) 결국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났으니까요. 더 먼 미래에는 연초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아직은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대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N,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특히 흡연자들은 정책의 목적이 ‘연초 흡연을 낮추기’인지 ‘완전한 금연’인지를 고려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연초 흡연율을 낮추는 것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한 금연을 달성하기에는 비흡연자의 담배 자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이루어지고, 연초 흡연을 낮추기로 정책의 방향성을 정해 궐련

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때 반드시 꺼련형 전자담배의 흡연이 연초 흡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의견에는 꺼련형 전자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냥 연초를 줄이겠다는 목적만 있으면 이런 게 맞을 것 같은데 금연을 시키겠다는 거면 그냥 똑같이 나쁘게 매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전자담배로 시작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I, 연초 흡연)

“이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지식이 없는 상태여서요. 이 연기에 어떤 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할 텐데. 최종 목표가 지금보다 나은 상태인 거라면 꺼련형 전자담배를 권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싶은 거라면 글썄요.” (R, 꺼련형 전자담배 흡연)

(4) 현실적인 금연 가능성을 고려한 꺼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의 차등 규제 방식 찬성

먼저 연초보다 꺼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 소비자들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꺼련형 전자담배가 해롭지 않기 때문보다는 분명히 유해성이 존재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동시에 연초보다 덜 해로운 차악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꺼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완화에 동의하였다. 즉, 꺼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아예 금연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연초보다 꺼련형 전자담배를 권하는 게 흡연자의 건강에 덜 해

로울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연초와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차등적 규제 방식에 동의하는 의견은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흡연자들이 끊고자 해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습관 때문인데 그 습관을 좀 바꿔가면서 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궤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든 게 제일 크고요.” (E, 비흡연)

“일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보다 저는 궤련형 전자담배나 이런 거를 원하는 정책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떤 담배를 피우든 끊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자기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못 끊어서 피워야 한다면 저는 그냥 궤련형 전자담배를 피는 게 맞지 않나. 이 덜 해로운 걸 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P,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

“사람들한테 덜 해로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완전히 끊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S,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

(5) 간접흡연 피해 감소를 위한 궤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의 차등 규제 방식 찬성

소비자들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떠올렸을 때 흡연자가 연초보다 궤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다. 이들은 궤련형 전자담배도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냄새가 덜하고 비흡연자에게 불쾌감을 덜 주기 때문에 연초보다 궤련형 전자

담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꺼련형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의견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나타났으며, 비흡연자도 꺼련형 전자담배로 인한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초보다 덜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차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연초보다는 낫지 않을까는 생각이 해요. 일단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냄새가 다르니까. 연초보다는 이거(꺼련형 전자담배)를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금연을 강요하기는 쉽지 않으니깐요.” (C, 비흡연)

“간접흡연으로 남한테 피해 주는 부분도 있고 진짜 길거리에서 정말 이제 담배를 태울 장소를 찾기도 힘들고. 연초는 비닐 비소 카드뮴 니켈 벤젠 이런 게 많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전자담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좀 덜 첨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무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좀 끊어나가는 게 정말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 연초 흡연)

(6) 중독의 위험성을 고려한 꺼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의 동일 규제 방식 찬성

연초와 꺼련형 흡연자 모두 꺼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중독성을 고려했을 때 연초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꺼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그만큼 연초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꺼련형 전자담배를 권하는 의미로 소비자

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각종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흡연자들은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중독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정 부분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더 해롭다고 인식하였고, 이와 같은 인식이 규제 정책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해성도 유해성인데 결국에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시작을 했던 사람이더라도 연초로 넘어가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같은 흡연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완화는) 비흡연자들이 전자담배에 너무 손쉽게 손을 대는 그런 이제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G, 연초 흡연)

“그냥 담배랑 같이 애도 퍼봐 이거예요. 오히려 다양한 종류를 권하고 있는. 그러면 담배랑 궐련형 전자담배 두 개씩을 갖고 다닌다는 거죠.” (Q,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5. 결론 및 논의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가 새롭게 국내 담배 시장에 진출한 이후 성인 흡연율과 연초 판매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다. 담배 제조 회사 측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덜 유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유해성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연초와 같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확인하고자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세계 각국의 꺼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하는 신종 담배의 규제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꺼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과학적,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해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흡연자, 연초 흡연자, 꺼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를 모두 포함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연초와 꺼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인식 비교와 현재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소비자 관점에서 꺼련형 전자담배의 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흡연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종 담배인 꺼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현재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금연을 유도하고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꺼련형 전자담배에 관한 규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향후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연구 자료이자 정책의 근거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꺼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

각종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비교한 결과, 소비자들은 흡연 형태에 상관없이 냄새를 첫 번째 기준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독한 냄새를 뿜는 연초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꺼련형 전자담배보다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인식은 담배의 유해성을 평가할 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냄새와 같은 직관적인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연초와 껌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인식을 살펴보면서 가장 주요하게 드러났던 점은 소비자들은 흡연 형태에 상관없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껌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새롭게 등장한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껌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과학적 연구 자료를 본 적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제공되는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에 비흡연자나 연초 흡연자뿐만 아니라 현재도 껌련형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있는 흡연자도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껌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는 자신이 흡연하고 있는 껌련형 전자담배가 추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담배 관련 연구들이 껌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의 유해성을 비교하는 과학적 접근을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떠올렸을 때 학자들과 실무자, 정책 입안자들은 각종 담배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정작 소비의 주체인 개인에게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제 껌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유해성, 관련 규제 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소비자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정부의 경우 각종 담배의 유해성과 규제 정책 내용을 논의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관련 자료와 논의 내용, 결정 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질병관리청은 담배규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진행된 흡연 폐해 연구

결과를 담은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국은 이미 보건 의료총감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면서 담배로 인한 건강 폐해, 사회적 손실 등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담배규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기관의 노력은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고 전체적인 흡연율을 낮춤으로써 개인의 건강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사회경제적 비용의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계, 산업계, 정부는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 담배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담배 규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금연 유도 정책에 대한 낮은 실효성 평가와 추가적인 규제 요구

비흡연자, 연초 흡연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모두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금연 유도 정책의 실효성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평가하였다. 대다수 소비자는 금연 캠페인이나 금연에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길거리 흡연 벌금 부과 등과 같이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인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 직접 흡연보다 간접흡연이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정책과 함께 벌금 부과,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얻은 세수를 흡연자들에게 충분한 흡연 공간을 마련해주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증가된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흡연 공간을 마련하는 등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가

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사람들의 반발을 낮추면서 규제 정책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3)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근거 자료에 대한 요구

대다수 참여자는 각종 담배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 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도 완벽한 금연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해하지는 않지만 연초보다는 덜 유해한 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차선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비흡연자는 쉐련형 전자담배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연초보다 덜하다고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밝혔으며,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도 간접흡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담배 관련 규제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러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각종 담배 관련 규제 정책을 시행할 때 또 고려해야 할 것은 정책의 목표와 함께 정책 시행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 마련이었다. 유해성 인식에 이어 참여자들은 과연 정부가 충분한 근거를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꾸준히 드러냈다. 질병관리청은 담배폐해 통합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중보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근거중심보건의 정책이 효과적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Brownson et al., 2017; 질병관리청, 2022), 마찬가지로 연초와 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구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것은 분명하지만 기호식품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규제와 금연 유도 정책에 대한 반발이 흡연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김무연, 2021),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인 소비자들의 반발을 낮추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더욱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들은 담배의 유해성 관련 연구 조사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였다. 특히 담배회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으며, 정부, 기업, 제3의 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 연구 진행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자료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진행은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는 더욱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4) 꺼련형 전자담배의 중독성 관리에 대한 요구

흡연자들은 꺼련형 전자담배가 연초와 비교했을 때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덜 유해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냄새가 적어 흡연 장소, 시간의 구애를 덜 받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흡연량을 늘리고 더 심각한 중독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꺼련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덜 유해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중독으로 인해 연초 흡연율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꺼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방식을 정할 때 정부는 꺼련형 전자담배 흡연자가 연초 흡연자가 되지 않도록 흡연 유형에 따라 흡연자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금연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담배 제조 기업 또한 이러한 소비자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꺼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는 ‘흡연을 시작하지 마세요. 흡연

하고 있다면, 끊으세요. 끊지 않겠다면, 바꾸세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비흡연자에게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일반 연초 흡연자를 아이코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이혜진, 2022). 소비자들은 쉐련형 전자담배를 시작으로 흡연량이 늘거나 새로운 중독 대상이 생기는 것에 대한 높은 우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기업에 대한 신뢰, 브랜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안

본 연구는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각종 담배와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평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은 소비자 관점에서 비교적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어떠한 근거로 연초와 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지를 밝히기에 적합하였다. 대다수의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또한 20명 내외의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을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종 담배에 대한 유해성, 중독성 등 인식, 담배 관련 정보 제공의 충분성, 담배 규제와 금연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집단 간 비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양적 연구 방법의 적용을 통해 흡연 형태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가를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권은주 · 나은희 · 조선 · 추지은 · 김수영 (2019). 군인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경험과 현재 사용.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19(4), 221-228.
- 권은주 · 나은희 · 조선 · 추지은 · 김수영 · 강필수 · 김태숙 (2020). 현재 궐련을 흡연 중인 군인의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복합사용의 관련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2), 1-13.
- 기획재정부 (2022). 2022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URL: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483&menuNo=4010100
- 김무연 (2021, 6, 19). [그땀 그랬지] “아직도 담배 피세요?” 설 곳 잃어가는 흡연자. <이데일리>. URL: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00566629083360&mediaCodeNo=257&OutLnkChk=Y>
- 김보미 (2022, 11, 16). 금연벨 · QR코드 · 풍선효과 분석...흡연 과태료 10년, 금연 정책은 ‘고도화’ 중. <경향신문>. URL: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161711011>
- 김분한 · 김금자 · 박인숙 · 이금재 · 김진경 · 홍정주 · ... ·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08-1220.
- 김분한 · 탁영란 · 전미영 (1996). 호스피스 간호사 말기 암환자의 임종현상 연구-독립형 호스피스 센터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3), 668-677.
- 김수영 · 김길용 (2022).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 현황과 담배규제 정책

이 주는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5호, 6-22.

김수정 · 권순만 (2008). 흡연의 사회적 비용 분석: 2006 년을 기준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4), 119-140.

김은빈 (2022, 10, 27). 흡연 야기한 사회적 비용 연간 12조원 이상. <쿠키뉴스>. URL: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270140>

김지민 · 조홍준. (2021). 한국 성인에서 가열담배 사용 이유. <대한금연학회지>, 12(2), 53-63.

남라다 (2022, 12, 29). 선진국, 전자담배 규제 완화정책 드라이브...국내 업계도 촉각. <아주경제>. URL:

<https://www.ajunews.com/view/20221229135414915>

박은영, 신봉자, 정희자, 김희량, & 김영미. (2020). 임상간호사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의 이직경험: 현상학적 연구. <대한질적연구학회지>, 5(1), 14-25.

박명배 (2019). 신종담배의 출현과 정책방향: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에 대한 전략. <보건행정학회지>, 29(1), 4-10.

박민희 · 송혜영 (2020). 청소년의 흡연과 건강행위 및 건강수준과의 관련성: 궐련담배와 전자담배 비교.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4(2), 153-164.

박선훈 · 전종설 · 강주희 · 오혜정 (2010). 흡연 청소년과 비흡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종단적 비교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2), 75-94.

박효주 (2022, 11, 13). [스페셜리포트] ‘위해성 저감’ 논란 아직도... 해외 규제는?. <전자신문>. URL:

<https://www.etnews.com/20221111000182>

백주아 (2022, 1, 3). ‘코로나 특수’..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 15% 돌파. <이데일리>. URL:

궤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에 대한 유해성 인식과 각종 담배 규제 방식에 대한 인식 비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59046632194112&mediaCodeNo=257&OutLnkChk=Y>

서미선 (2022, 1, 28). 코로나가 바꾼 담배 선호도... 궤련 줄고 전자담배 17% 늘어. <뉴스1>. URL: <https://www.news1.kr/articles/?4569886>

설귀환 · 정지운 · 임병인 (2021). 남성 흡연자의 궤련형 전자담배 선택 요인 분석. <한국경제연구>, 39(2), 31-50.

송치훈 (2023, 04, 25). 코로나19 때 줄었던 음주-흡연을 증가...비만도 늘어. <동아일보> URL: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25/118998200/2>

신선미 (2022, 10, 11). 한국은 무조건 금연 VS 세계는 유해성 줄이기. <한국경제TV>. URL: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10110281&t=NNv>

신승근 · 유경선 · 조경희 (2017). 전자담배의 규제 동향과 과세방식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9(3), 157-179.

엄남현 (2017). 흡연자와 비흡연자 남녀 대학생 비교: 국내외 담배 경고그림 비교를 중심으로. <광고 PR 실학연구>, 10(3), 196-216.

유기웅 · 정종원 · 김영석 · 김한별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윤지현 (2023, 03, 14). 질병청, “우리는 전자담배도 분명한 흡연으로 간주합니다!”. <헬스컨슈머>. URL:

<http://www.healthumer.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3>

이경원 · 김혜경 · 오영아 (2016). 국내 성인의 간접흡연과 정신건강의 관련성. <대한보건연구>, 42(3), 29-38.

이운창 · 박상태 · 박진용 (2021). 궤련형 전자담배 제품속성에 대한 소비자 반응-브랜드 명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통물류연구>, 8(3), 5-22.

- 이은하 · 박수경 · 고광필 · 조인성 · 장성훈 · 신해림 · ... · 유근영 (2010). 한국인의 흡연과 사망 위험에 관한 코호트 연구.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43(2), 151-158.
- 이철민 · 김성렬 · 정유석 (2018). 신종 담배 (전자담배, 가열담배) 의 쟁점: ‘담배의 해로움 줄이기’관점에서.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61(3), 181-190.
- 이철민 (2020).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국제적 규제정책 비교.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63(2), 112-118.
- 이혜진 (2022, 10, 28). “비흡연자에겐 안 팝니다”.. 한 담배 회사의 전자담배 판매 원칙. <파이낸셜뉴스>. URL: <https://www.fnnews.com/news/202210271309037711>
- 전은실 · 황지은 (2020). 한국인 대상 가열담배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대한보건연구>, 43(3), 15-29.
- 조준호 (2020). 청소년의 껴련형 전자담배 사용과 자살관련행동과의 관계. <한국환경보건학회지>, 46(4), 388-397.
- 조홍준 (2020). 껴련, 전자담배, 가열담배의 유해성 비교.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63(2), 96-104.
- 진예지 · 강민구 · 박태은. (2022). 금연을 위한 전자담배의 사용과 세계 규제 동향. <한국임상약학회지>, 32(2), 133-143.
- 질병관리청 (2022). 담배폐해 통합보고서. URL: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176>
- 차광석 (2001). 운동생리학: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기능, 유산소 운동 능력, 혈압, 혈중 헤모글로빈 비교. <한국체육학회지>, 40(3), 845-857.
- 최은진 · 이정화 (2005). 간접흡연감소를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5(7), 92-99.
- 최지은 · 조홍준 (2021). 한국 성인에서 껴련형 전자담배의 전자기기

규제 지지도 및 관련 요인. <대한금연학회지>, 12(2), 64-73.

- Auer, R., Concha-Lozano, N., Jacot-Sadowski, I., Cornuz, J., & Berthet, A. (2017). Heat-not-burn tobacco cigarettes: smoke by any other name. *JAMA Internal Medicine*, 177(7), 1050-1052.
- Bekki, K., Inaba, Y., Uchiyama, S., & Kunugita, N. (2017). Comparison of chemicals in mainstream smoke in heat-not-burn tobacco and combustion cigarettes. *Journal of UOEH*, 39(3), 201-207.
- Brownson, R. C., Baker, E. A., Deshpande, A. D., & Gillespie, K. N. (2017). Evidence-based public health. Oxford university press.
- Bryman, A. (2012). *Social research methods*. (4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cioppo, J. T., & Petty, R. E. (1989). Effects of message repetition on argument processing, recall, and persuas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0(1), 3-12.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22). CDC. About Global Tobacco Surveillance System (GTSS). Accessed in 26th November 2022. Available from <https://www.cdc.gov/tobacco/global/gtss/index.htm>
- Colaizzi P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 Farsalinos, K. E., Yannovits, N., Sarri, T., Voudris, V., & Poulas, K. (2018). Nicotine delivery to the aerosol of a heat-not-burn tobacco product: comparison with a tobacco cigarette and e-cigarettes. *Nicotine and Tobacco Research*, 20(8), 1004-1009.
- Fried, N. D., & Gardner, J. D. (2020). Heat-not-burn tobacco products: an emerging threat to cardiovascular health.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Heart and Circulatory Physiology*, 319(6), H1234-H1239.
- Fung, M. D., Diemert, L. M., Zhang, B., O'Connor, S., & Schwartz, R. (2020). Awareness and perceived risk of heated tobacco products. *Tobacco*

Regulatory Science, 6(1), 15-19.

- Hair, E. C., Bennett, M., Sheen, E., Cantrell, J., Briggs, J., Fenn, Z., ... & Vallone, D. (2018). Examining perceptions about IQOS heated tobacco product: consumer studies in Japan and Switzerland. *Tobacco Control*, 27, s70-s73.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2004). Tobacco smoking and tobacco smoke,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IARC, Lyon,1, 1-1452.
- Kim, J. M., & Cho, H. J. (2021). Reasons for Using Heated Tobacco Products among South Korean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12(2), 53-63.
- Krugman, H. E. (1977). Memory without recall, exposure without perception.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40(6), 49-54.
- Mitchell, A. A. (1981). The dimensions of advertising involvemen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8, 25-30.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2021). Tobacco: preventing uptake, promoting quitting and treating dependence. Available from <https://www.nice.org.uk/guidance/ng209/resources/tobacco-preventing-uptake-promoting-quitting-and-treatingdependence-pdf-66143723132869>.
- Petty, R. E., Cacioppo, J. T., & Goldman, R. (1981). Personal involvement as a determinant of argument-based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5), 847-855.
- Protano, C., Manigrasso, M., Avino, P., & Vitali, M. (2017). Second-hand smoke generated by combustion and electronic smoking devices used in real scenarios: Ultrafine particle pollution and age-related dose assessment. *Environment International*, 107, 190-195.

- Simonavicius, E., McNeill, A., Shahab, L., & Brose, L. S. (2019). Heat-not-burn tobacco product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obacco Control*, 28(5), 582-594.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DHHS). (2014).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ordinating Center for Health Promotion,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ffice on Smoking and Health.
- Walls, A., Okumus, F., Wang, Y., & Kwun, D. J. W. (2011). Understanding the consumer experience: An exploratory study of luxury hotels. *Journal of Hospitality Marketing & Management*, 20(2), 166-197.

최초 투고일: 2022년 12월 01일

논문 수정일: 2023년 05월 21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6월 19일

Comparing Perceived Harm and Tobacco Regulations for Heat-not-burn Tobacco and Conventional Cigarettes

Jungwon Kim

(Ph.D., Korea University)

Jungyong Ahn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Yongjun Sung*

(Professor, Korea University)

Heat-not-burn tobacco, a novel tobacco product that involves steaming solids instead of burning like traditional cigarettes, has been experiencing a growing demand among consumers. However, concerns about its potential harm and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policies have arisen. Existing research has predominantly focused on scientific and political aspects, neglecting the perspectives of consumers who are both tobacco consumers and targets of regulation. Thu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perceptions of harm associated with various cigarette types and assess the efficacy of current tobacco regulation polici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mokers and non-smokers. Participants evaluated the harmfulness of heat-not-burn tobacco and traditional cigarettes based on smell, personal health experiences, and addiction potential, despite acknowledging the lack of scientific evidence.

꺼련형 전자담배와 연초에 대한 유해성 인식과 각종 담배 규제 방식에 대한 인식 비교

Furthermore, they deemed current tobacco regulation policies ineffective and expressed the need for purpose-driven policies based on objective grounds.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for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by offering a consumer-centric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t tobacco products and relevant regulatory policies.

Key words : Alternative tobacco, Heat-not-burn tobacco, Antismoking Policies, Public Healthcare Policies, Interview research

* sungyj@korea.ac.kr, Corresponding author